

중학생의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부모-자녀와의 관계 탐색

최경은* · 유난숙**†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부교수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Core Competencies: Focused on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Choi, Kyeongun* · Yu, Nan Sook**†

**Master's student,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profiles according to the core competenc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whethe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predicts the latent profiles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for students defi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total of 6,065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from the fourth year of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KELS 2013),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n 2016. The results of latent profile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re as follows. First, three latent profiles (higher competency group (19.54%), middle competency group (49.03%), and lower competency group (31.43%))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core competencies. For all groups, the highest competency was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 lowest was creative ability. Second, the variables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e., parental academic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attachment level)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differences among the core competency latent profiles. In particular, the emotional support of parents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core competenc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identified the influenc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on the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Further, it showed that a good family relationship is important for the holistic development of adolescents.

Key words: 부모-자녀 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
핵심역량(core competency)

I. 서론

학교가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학교 구조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며 전문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Hoy & Sweetland, 2001). 이전부터 학교교육은 가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왔으며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학습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hon, 2006; So, 2007).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관점은 OECD(2002)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오고 있고,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3범주 9영역의 ‘핵심역량’을 규정한 이후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념이 재조명되고 있다(Yang & Yoo, 2015). 즉, 학습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Kim, 2014).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미래 사회의 요구에 따른 창의융합형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 6개 핵심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을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a).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서는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에 대하여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강조한다(MOE,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서도 6개 핵심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을 제시하였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기존의 범교과적이고 일반적인 역량을 6개로 제시하는 데 그친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교육목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핵심역량과 연계한 교육 목표를 체계화하기 위해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 및 성격에 대한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핵심역량을 학습자의 발달단계 및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식과 이해, 과정과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포함하여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개념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역량 중심 교육은 여러 나라의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역량은 중요한 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여겨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학문과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다(Yang & Yoo, 2015).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며 학습의 주체가 되어 일상에서 학습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교실에서 교사의 실제 수업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Kil & Kim, 2018).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총론의 전체적인 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교과 교육과정의 각론에 적용하여 개정하는 순차개정의 방식으로 즉, 교과에 앞서 총론이 먼저 개발되며, 각 교과의 교육목표를 통해 총론에서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Hong, 2006).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 6개의 핵심역량을 제시하였고, 교과 각론 중 가정교과에서는 핵심역량으로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을 제시하였다(MOE, 2015b). 가정교과는 실천비판적인 성격을 가진 교과로 개인이 자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타인 및 환경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Yoo & Lee, 2018). 가정교과 성격에 명시된 ‘가정생활’ 분야는 학습자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구조 유형이 등장하였고, 청소년들은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생활방식 속에서 경험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가정교과를 통해 미래 자신의 가족에 대한 모습을 계획할 수 있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Kim & Yu, 2019).

OECD는 Social Outcomes of Learning(SOL)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이 학습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맥락을 살펴보았다(OECD, 2006). 이후 Education Social Progress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을 인지적 차원과 비인지적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구성된 모델을 통하여 학습환경과 역량, 사회적 차원에서 역량을 바라보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Namkung et al., 2015). DeSeCo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각 여러 나라에서 노력해오고 있는데, INES(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하여 사람들의 전반적인 역량 발달 수준이 어떠한지, 역량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로파일로 특징지어지는지, 무엇이 역량 수준 발달을 야기하는지, 역량과 사회적, 경제적 결과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Rychen & Salganik, 2000).

어떤 요인이 학습자 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은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적, 정리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게 되므로 인간관계는 청소년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Kim, 2009). 개인의 성장에 있어 초기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개인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Bronfenbrenner, 1979). 개인이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은 부모이며, 가족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족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 습관, 태도 등을 형성하기 때문에 특히 인지적·정리적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Kim, 2006; Lim, 2005). 핵심역량과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할수록, 부모가 애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부모의 교육 지원이 높을수록 핵심역량 수준이 높게 예측되었다(Chung, Won, & Park, 2018; Kim & Kim, 2020; Son & Kim, 2019). 이처럼 핵심역량 발달의 예측요인으로서 부모-자녀 관계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고, 직접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집단 내 이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Muthén & Muthén, 1998). 핵심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핵심역량의 예측요인으로 개인, 부모, 학교 차원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거나, 수업방식 및 교육방법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핵심역량 프로파일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핵심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을 다르게 예측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서 중학생의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하여 가정교과 내용요소에 관한 교육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모-자녀 관계 교육과 관련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학생의 핵심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자녀 관계는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핵심역량과 핵심역량 프로파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계 및 기준이다(Hong, 1999).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역량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Lee, Beak, & Lee, 2017).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6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관리 역량(개인이 자아정체감 및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 및 활용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폭넓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타인에 대한 공감 및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공동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한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 공동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말한다(MOE, 2015c).

Lee, Park, Min과 Shin(2021a)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집단을 도출하였다. 즉, 6대 핵심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13개의 핵심역량 소영역을 기반으로 잠재프로파일을 추출한 결과, ‘전반적 중위’, ‘전반적 중상위’, ‘전반적 상위’ 등 세 프로파일의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95%), 나머지 두 프로파일은 ‘전반적 상위 및 독서예술향기’ 집단과 ‘의사소통 상위 및 민주시민성 향기’ 집단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속한 세 프로파일의 경우 대체로 잠재프로파일 내 핵심역량이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하나의 핵심역량이 상위 수준일 경우 다른 핵심역량도 마찬가지로 상위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어떤 한 핵심역량 수준이 중상위 수준이면 다른 핵심역량도 중상위 수준일 것임을 나타냈다.

2. 부모-자녀 관계와 핵심역량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 중 부모의 학업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과 애착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 수준(창의역량, 자기주도역량, 사회역량)을 가장 포괄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이며(Park & Namkung, 2016), 6개의 핵심역량은 여러 가정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요소인 자기주도성 영역과 관련하여, 중학생의 가정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적 및 심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조절학습 능력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ynn & Lee, 2010). Lee와 Song(2017)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학습자는 더 높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아개념이 높은 학습자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높게 예측하였고(Yoon, 2015), 부모가 자신

을 존중한다고 느낄수록 중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l & Kim, 2018).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관련하여 중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가 원만할수록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정보활용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Park & Namkung, 2016). 부모의 지지를 낮게 인식할수록 중학생이 인터넷 중독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An, 200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 사용에 있어 긍정적 측면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Bae, Park, & Ko, 2012). 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창의적 사고능력이 더 높았다(Lee, 2019).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창의적인 성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보다 창의적 역량 중 모험심 역량을 크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won & Shin, 2009). 또한 자녀가 가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창의적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Kim, 2008).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된 부모가 자녀의 신체 관련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격려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할 경우 청소년들의 체육 수업에 대해 유능감 및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적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Ryu & Kim, 2010). 이는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활동을 지지하는 행동은 이후 성인기에 적극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스포츠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있어 부모의 지지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물질적 및 행동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래관계 및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 및 유지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Kim, 2015). 의사소통 능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청소년의 공감 능력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 Lee, 2009). 부모가 자녀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공감능력 향상과 연관이 있었다(Park, Kim, & Kim, 2014). 공동체 역량과 관련하여 또래관

계 및 사회적 관계에 유능하고, 규범과 질서를 잘 따르고, 성취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역량(Chong, 1992)과 가족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가족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Yoo,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핵심역량의 한 요소와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핵심역량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은 드물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지원, 애착수준을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핵심역량을 유형화한 뒤,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별 차이를 예측한다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용요소 및 프로그램 구성에도 본 연구가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부모-자녀 관계와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적인 양육태도를 제공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고성취-중간역량 집단에 비해 중간성취-고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고성취-중간역량 집단과 저성취-저역량 집단에서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Chung et al., 2018). 부모-자녀와의 관계와 자기관리 역량의 진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가 감독을 많이 한다고 느낄수록 학업성취도가 보통인 보통성취군과 최저성취군보다 학업성취도는 높고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은 학업우수 진로미약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Koo & Kim, 2018). 미래 핵심역량 수준은 대부분 가정요인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할수록 남학생들의 창의역량 수준이 높았고, 여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이 높았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지원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Kil & Kim, 2018). 부모의 애정적이고 일관성있는 양육

태도는 대인관계역량이 낮고 하위 영역 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집단보다 대인관계역량이 높고 역량이 고르게 발달된 상위 역량-균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상위역량 집단 청소년들은 중위역량 집단이나 하위역량 집단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협동 능력이 높고 갈등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20). 핵심역량 집단별 영향 요인을 살펴본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상호작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지원도 6개의 핵심역량과 각각 연관을 나타냈는데,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높을수록 사회역량 수준이 더 높았다(Park & Namkung, 2016). 가정변인과 창의역량 유형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가정의 소득 수준과 부모의 학업적 및 정서적 교육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의 학업적 교육지원이 높을수록 창의적 사고역량 최저집단보다 창의역량 우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on & Kim, 2019). 이처럼 가정변인과 개인변인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역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지원 및 애착수준이 6대 핵심역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에 따른 집단을 유형화하고, 부모-자녀 관계(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정서적 지원 및 애착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도출된 프로파일과 부모-자녀 관계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urvey; KELS 2013)에서 핵심역량 조사가 처음으로 포함된 4차년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은 2013년도 1차 조사 당시 전국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패널 조사이다. 1차 조사 당시 패널 구축

학생 수에서 조사 철회와 유예 학생을 제외하고, 2016년 4차년도에 수집된 조사 대상자는 중학교 2학년 총 6,773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4차 학생 ID를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핵심역량, 부모-자녀 관계 관련 문항에 모두 응답한 학생 6,065명(남: 2,924명, 여: 3,141명)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4차년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중학생의 핵심역량, 부모-자녀 관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변인으로 부모의 학업적, 정서적 지원, 애착 자료가 수집되었다.

1) 핵심역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4차년도 핵심역량조사지는 Namkung 외 (2016)가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하여 중학생의 핵심역량 6개 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을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자기관리 역량은 총 36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의식 9문항, 자기주도성 13문항, 진로성숙도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3이었다. 긍정적 자아의식의 지표 중 자아정체감 5문항(‘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느낀다.’,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는 대로 잘 이끌린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나에게는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강한 욕구가 없다.’)와 진로독립성 문항 중 2문항(‘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나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총 9문항으로, 지식정보처리 능력으로 구분하여 지식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5문항,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8이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창의적 사고 능력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Cronbach α 값은 .94이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은

총 22문항으로, 문화적 소양(13문항)과 다문화 수용성(9문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Cronbach α 값은 .88이었다. 의사소통역량은 총 10문항으로, 공감 5문항, 소통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값은 .91이었다. 공동체 역량은 총 27문항으로 민주시민성(17문항)과 세계시민성(10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Cronbach α 값은 .94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관계

(1) 부모 지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서 조사된 부모 지원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에서 사용한 부모의 학업적 지원(6문항)과 정서적 지원(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학업적 지원의 예시 문항으로는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신다.’, ‘진로/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신다.’,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신다.’ 등의 문항이 있고, 정서적 지원의 문항은 ‘나를 격려하신다.’, ‘내 기분을 맞추어 주신다.’, ‘나를 이해해 주신다.’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학업적 지원이 .86, 정서적 지원은 .93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애착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KELS 2013) 4차(2016년)부터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실시된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4차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부모의 애착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6문항) 문항을 사용하였고, 애착은 학습자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지각하는 소외 정도를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부모님(또는 보호자)께 내 문제를 이야기하면 꾸짖고 따박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함께 있을 때 자주 기분이 나빠진다.’, ‘나는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는 부모님(또는 보호자)께 자주 화가 난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요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

Table 1. Mean scores and reliability of core competenci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Variables	M(SD)	Cronbach's α	
핵심역량	자기관리	3.64(.52)	.93
	지식정보처리	3.72(.66)	.88
	창의적 사고	3.50(.65)	.94
	심미적 감성	3.75(.55)	.88
	의사소통	3.92(.61)	.91
	공동체	3.75(.56)	.94
부모-자녀 관계	학업적 지원	3.27(.86)	.87
	정서적 지원	3.92(.90)	.93
	애착	3.89(.90)	.89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6문항 모두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 애착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9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다. 6대 핵심역량은 모두 5점 만점으로 각각의 평균은 자기관리역량은 평균 3.64($SD=.52$)점,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평균 3.72($SD=.66$)점,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평균 3.50($SD=.65$)점, 심미적 감성 역량은 평균 3.75($SD=.55$)점, 의사소통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92($SD=.61$)점, 공동체 역량은 평균 3.75($SD=.56$)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공동체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이 높았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이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Namkung et al., 2016).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지원은 모두 5점 만점으로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평균 3.27($SD=.86$)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평균 3.92($SD=.90$)점,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은 평균 3.89($SD=.83$)점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중학생의 여섯 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

내는 요인에 따른 유형 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기존의 변수중심분석(variable-oriented analysis)과는 달리 사람중심분석(person-oriented analysis) 방법이며, 변수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는 분석방법이다(Bergman & Magnusson, 1997). 이는 수집된 데이터에서 개인들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데 유용하고, 몇 개의 하위집단이 가장 적합한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도출하여 개인은 속할 확률이 높은 하위집단에 배치된다. 즉,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한 집단 내 존재하는 다른 특성을 보인 잠재계층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No, Jung, & Hong, 2014; Shin, 2010).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집단을 분류할 때는 개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속하게 되는 집단에 할당되며, 잠재계층 간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적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Asparouhov & Muthén, 2014).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을 기준으로 적합한 모형을 평가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판정하기 위하여 정보지수와 모형비교 검증 및 분류의 질을 확인하는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Muthén & Asparouhov, 2012). 일반적으로 하위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단의 개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각 모형을 비교한다(Schmiege, Meek, Bryan, & Peterson, 2012; Tein, Cox, & Cham, 2013). 모형을 비교하는 기술적 지표인 정보지수는 AIC, BIC, SABIC를 확인하는데, 표집의 크기나 추정 모수의 수를 고려하여 사용하며, 각 정보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임을 의미한다. 모형비교 검증을 위하여 조정된 차이검증인 LMR과 BLRT의 p 값을 확인한다.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k-1$ 개와 k 개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k 개 모형의 p 값이 유의하면 잠재프로파일의 수 $k-1$ 개인 모형을 기각하고 k 개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No et al., 2014; Wang & Wang, 2012). 또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 값을 확인하는데, 이는 구분된 계층에 따라 개별 사례가 얼마나 잘 분류되었는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적합 지수이다. 엔트로피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에서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고 0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Clark & Muthén, 2009). 보편적으로 entropy 값이 0.8 이상

으로 나타나면 정확한 분류가 되었음을 나타낸다(Lubke & Muthén, 2007; Muthén & Muthén, 1998).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6.0으로 핵심역량 및 변인의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Mplus 8.7을 이용하여 총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중학생의 핵심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자녀 관계 변인이 잠재프로파일별 핵심역량 수준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소년의 핵심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AIC, BIC, SABIC)와 모형비교검증(LRT, BLT) 및 엔트로피(entropy)를 확인하며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Table 2). 먼저, 유형별 집단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하였을 때,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 값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각 값의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잠재프로파일 개수가 5개 이상일 경우부터 감소 폭이 미미하였다(Figure 1). 엔트로피 값은 잠재프로파일 수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할수록 값이 작아졌지만, entropy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늘어날수록 나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형을 선택할 때 주요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Collins & Lanza, 2010). 엔트로피 값이 0.8 이상을 나타낼 경우 분류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Clark & Muthén, 2009), 잠재프로파일 수가 4개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값이 0.8 이상이고, 잠재프로파일 수가 4개일 경우에도 0.79의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분류의 질 측면에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잠재프로파일 할당확률은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평균적으로 제시하는데, 대각선의 값이 클수록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잠재프로파일 별 할당확률은 <Table 3>과 같이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비교 검증을 위해 LMR, LRT의 값을 살펴보면, 각각의 *p* 값은 모두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큰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이러한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 있는데(Nylund-Gibson, Grimm, Quirk, & Furlong, 2014), 본 연구에서도 LMR, LRT의 값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준으로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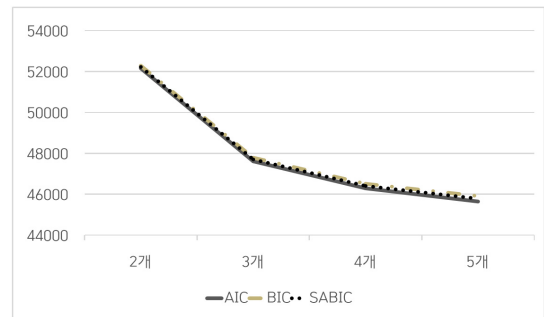


Figure 1. AIC, BIC, and SABIC for models of core competencies

Table 2. Statistical fit indices for different class solutions

Fit indices		Model			
		2-class	3-class	4-class	5-class
정보지수	AIC	52158.64	47612.47	46290.38	45643.89
	BIC	52286.13	46604.32	46511.82	45912.31
	SABIC	52225.76	47704.32	46406.96	45785.20
모형비교검증	LMR	0.00	0.00	0.00	0.00
	LRT	0.00	0.00	0.00	0.00
분류의 질	Entropy	0.84	0.84	0.79	0.81

Table 3. Three class model information

(N=6,065)

	Average latent class probabilities			n	%
	1	2	3		
Class 1	0.92	0.00	0.08	1,906	31.43
Class 2	0.00	0.94	0.07	1,185	19.54
Class 3	0.05	0.03	0.92	2,974	49.03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ree competency groups

(N=6,065)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M(SD)	M(SD)	M(SD)	M(SD)	M(SD)	M(SD)
Lower competency group (n=1,906)	3.16 (0.01)	3.16 (0.02)	2.98 (0.02)	3.28 (0.02)	3.37 (0.02)	3.22 (0.02)
Higher competency group (n=1,185)	4.31 (0.02)	4.49 (0.02)	4.28 (0.02)	4.34 (0.02)	4.62 (0.02)	4.46 (0.02)
Middle competency group (n=2,974)	3.67 (0.01)	3.77 (0.02)	3.53 (0.02)	3.82 (0.02)	3.99 (0.02)	3.91 (0.02)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Lee, Jang, Song, & Hong, 2021). 따라서, 정보지수(AIC, BIC, SABIC)와 분류의 질(entropy)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였을 때 3개 혹은 4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할 때는 통계적 수치뿐만 아니라 해석의 용이성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하였을 경우, 각 잠재프로파일 간 특성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구분되었을 때는 집단별 분명한 핵심역량 수준 차이가 나타나 집단을 설명하는 데 명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통계적 수치와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핵심역량의 수준을 대표하는데 3개의 잠재프로파일 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최종 결정된 3개의 잠재프로파일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본 핵심역량의 평균은 <Table 4>와 같다.

전체 중 31.43%를 차지하는 첫 번째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모든 역량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이 집단을 ‘하위 역량 집단(31.43%)’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는 전체의 19.54%가 속한 집단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6개 핵심역량 수준이 전반적으로 모두 높았다. 이 집단을 ‘상위 역량 집단(19.54%)’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전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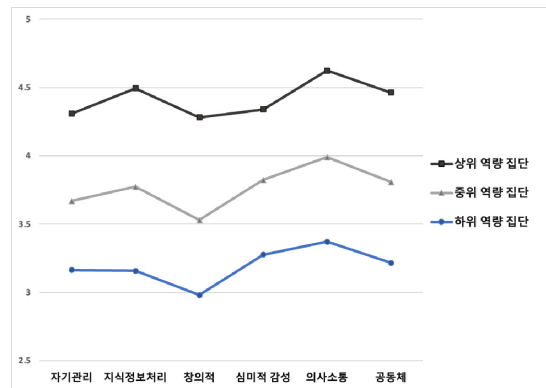


Figure 2. Means of core competencies of the three competency groups

모든 핵심역량이 중간 수준이었고, 이를 ‘중위 역량 집단(49.03%)’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집단은 각각 다른 수준의 핵심역량 수준을 나타냈고, 각 잠재프로파일별 여섯 개의 핵심역량 패턴은 유사하였다(Figure 2). 이는 잠재프로파일의 크기와 잠재프로파일 내 6개의 핵심역량이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Chung et al., 2018; Lee, Park, Min, & Shin, 2021a). ‘중위 역량 집단(49.03%)’에 속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핵

심역량 수준을 함께 살펴본 연구에서 ‘전반적 중상위’ 역량 집단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Lee, Shin, Kim, & Min, 2021b). 중학생의 핵심역량 수준과 학업성취도를 함께 살펴본 Chung 외(2018)의 연구에서는 ‘저성취-저역량’(39.7%) 집단과 ‘고성취-중간역량’(31.7%)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두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위 역량 집단’과 유사한 크기이고, 또한 본 연구의 ‘상위 역량 집단’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중간성취-고역량’ 집단이 가장 적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잠재프로파일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각 핵심역량별 평균을 살펴보고, ‘상위 역량 집단’, ‘중위 역량 집단’, ‘하위 역량 집단’ 간 핵심역량 수준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잠재프로파일에서 의사소통 핵심역량 수준이 가장 높았고, 창의적 사고 역량 수준이 가장 낮았다. ‘상위 역량 집단’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순으로 높았고, ‘중위 역량 집단’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다음으로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역량 집단’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이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에서 공통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 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대체로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Kil & Kim, 2018; Lee et al., 2021b).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데, 창의적 능력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의적 영역은 개인의 일반적 영역의 지식과 기능이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다

른 것의 결과로 성장할 수 있는 속성이므로(Kim, Kim, & Cho, 1997),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기초적인 지식 및 전문적 지식 향상과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학습 분위기를 지양하고,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장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 차이 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변인(부모의 학업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애착수준)이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하나의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인이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을 예측한다. 우선,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정서적 지원, 부모와의 애착 수준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학생들의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지각한 학업적 지원 수준, 정서적 지원,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핵심역량 상위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높을수록 중위 역량 집단과 비교하면 상위 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2.48배 높았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학업적 지원을 낮게 지각할수록 중위 역량 집단보다 하위 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조 집단(중위 역량 집단)과 ‘하위 역량 집단’과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학업적 지원을 높게

Table 5. Influence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competency latent profiles

	Lower competency group		Higher competency group	
	B(S.E)	exp(OR)	B(S.E)	exp(OR)
Academic support	-0.57*** (0.05)	0.57	0.79*** (0.07)	2.20
Emotional support	-0.64*** (0.06)	0.53	0.91*** (0.14)	2.48
Attachment	-0.18** (0.06)	0.84	0.39*** (0.08)	1.48

Note. Reference group: middle competency group.

*** $p < .001$, ** $p < .01$

지각할수록,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하위 역량 집단’보다 참조집단인 ‘중위 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지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핵심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중위 역량 집단’과 ‘상위 역량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학업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이 핵심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지원이 높을수록 핵심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의 핵심역량 수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핵심역량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의 학업적 및 정서적 지원과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은 학습자의 역량 발달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중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수준 차이는 학교 특성보다 대부분 가정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고,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할수록 자기주도 역량이 높고,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높을수록 사회역량이 더 높다고 나타난 Park과 Namkung(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자신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격려받았다고 느낄수록(Kil & Kim, 2018),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Chung et al., 2018), 부모의 양육방식이 허용적이고 지지적일수록(Namkung et al., 2016)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수준이 높다고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핵심역량에 따른 중학생의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각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을 예측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에 실시된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KELS 2013)의 4차 자료인 중학교 2학년 패널 데이터 6,065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핵심역량에 의해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구분되는지,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은 어떠한지 파악하였다. 이후,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자녀 관계는 핵심역량 잠재프로

파일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핵심역량 수준을 보였고, 특히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높았다. 한편, 창의적 사고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실시되었던 교육 현실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창의성은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하지만, 창의성과 관련하여 교육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창의성이란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함께 작동시키게 하는 마음 상태(Lucas, 2001)라고 볼 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핵심이 되는 속성이므로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은 일반 영역보다는 특정 내용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때 더 잘 발달한다. 즉, 창의성은 창의성 함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보다는 개별 교과 내용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존중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So, 2016). 이에 교과별 창의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을 높게 지각하였고, 이는 추후 가정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 지어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요구된다. 자기관리 역량은 다른 역량과 비교하여 부모-자녀 관계 변인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관리역량을 통해 학습자들이 시간관리나 수업에 대한 태도 등을 함양하고 자신이 하는 공부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적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성실도와 노력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핵심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한 결과, 핵심역량에 따라 3개의 잠재프로파일(‘상위 역량 집단’, ‘중위 역량 집단’, ‘하위 역량 집단’)을 도출하였다. 각 집단의 핵심역량 수준은 상이하였고, 프로파일별 여섯 개의 핵심역량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 역량 집단’, ‘중위 역량 집단’, ‘하위 역량 집단’ 간 핵심역량 수준 차이는 존재하

였지만, 모든 잠재프로파일 집단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 수준이 가장 낮았고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프로파일 간 ‘상위 역량 집단’, ‘중위 역량 집단’, ‘하위 역량 집단’ 간 핵심역량 평균 차이가 유의미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각 집단 모두 창의적 사고 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창의성 발달을 위한 환경적인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모의 교육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Son & Kim, 2019), 부모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을수록(Kim, 2008; Lee, 2019) 청소년의 창의적 능력을 높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가정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부모-자녀 관계 요인에 대해 검증한 결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정서적 지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핵심역량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중위 역량 집단’과 ‘상위 역량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학업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이 핵심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를 학업적 및 정서적 지지로 구별하여 영향력을 살펴본 Lee와 Song(2017)은 부모의 지지와 진로의식 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학업적 지지는 초기 진로의식 성숙도와 관련이 있었지만,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 청소년 시기에 느끼는 부모와의 관계는 이전의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달리 가변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Hwang & Kim, 2018). 이는 교육이 추구하는 역량을 지닌 미래 인간상을 길러내기 위해 가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 시기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안정감이 전반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이 핵심역량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는 부모의 직접적인 교육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이 강조되는 바이며, 자녀가 가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도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교육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교과 성격에 명시된 ‘가정생활’ 분야는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 및 정서, 사회적 안녕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변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한다(MOE, 2015b). 이를 통해 학습자의 발달에 있어 건강한 가족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친밀한 가족관계는 청소년 핵심역량 발달의 근간이 된다. 또한, 핵심역량의 하위요소 중 특히 자기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은 가정교과의 핵심역량인 ‘생활자립능력’ 및 ‘관계형성능력’과 기르고자 하는 교육목표와 맥락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생활자립능력이란 학습자가 성장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관계형성능력은 타인 및 환경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및 배려하는 태도를 형성하여 공동체적인 사고를 함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다.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이 국가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 연계되지 않는다면 교육적으로 학습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Lee & Hong, 2012). 가정교과 각론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이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정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정교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갖출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개인 및 가정이 현재와 미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둘째, 핵심역량 발달에 있어 부모의 지원, 특히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및 심리적 안정감이 핵심역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은 자녀의 성장 및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적 접근

이 요구되는데, 이는 가정교과 내용요소 중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 핵심개념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과를 통해 학습자는 가정생활에서의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정교과를 통해 학습자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가족 간 원만한 소통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지식과 역량은 학습자가 학습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Park, 2009),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이 국가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 연계되지 않는다면 교육적으로 학습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Lee & Hong, 2012). 즉, 친밀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자녀의 역량 발달에 영향을 주며, 또한 학교차원에서 가정교과가 가정과 수업을 통해 가족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가정교과가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시수가 확보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핵심역량과 부모-자녀 관계,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핵심역량 수준을 높게 예측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적 차원에서의 가족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내용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추후 교육과정 총론을 바탕으로 가정교과에서 구체적인 교육 목표 및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부모의 학업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을 높게 지각함에 따라 추후 가정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 지어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정변인 외 개인변인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등 핵심역량과 다양한 개인과 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후속연구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되며, 중학생이 추후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핵심역량 수준의 변화를 중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또한 요구된다.

참고문헌

- An, S. (2000). *A study on the addictive usage of the interne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 Bae, S. M., Park, J. K., & Ko, Y. S.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net addict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behavioral problem and internet use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529-544.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doi:10.1017/s095457949700206x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ng, Y. S. (1992). The relation between family environment, mother's psycho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socia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1), 27-55.
- Chung, H., Won, J., & Park, S. (2018). Classifying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core competencies of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variable fa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29(2), 185-215. doi:10.14816/sky.2018.29.2.185
- Clark, S. L.,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7346694>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Wiley. doi:10.1002/9780470567333

- Hong, H. J. (1999). Paradigm shift in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 quality control: From total revision paradigm to partial improvement paradi.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7(2), 209-234.
- Hong, H. J. (2006). Paradigm shift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quality control of Korean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3):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guidelines and subject-area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2), 183-206.
- Hoy, W. K., & Sweetland, S. R. (2001). Designing better schools: The meaning and measure of enabling school structur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7(3), 296-321. doi:10.1177/00131610121969334
- Hwang, H., & Kim, N. (2018). Understanding parenting style profiles: Characteristics and longitudinal change.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3), 679-702. doi:10.15753/aje.2018.09.19.3.679
- Kang, J.-H., & Lee, E.-H. (2009). Affectionate and self-regulating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s' abilities to empathize: The mediating role of the big-five personal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71-103.
- Kil, H., & Kim, J. (2018). Influence of key elements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on competencies of middle school stud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6(4), 289-315. doi:10.30916/KERA.56.4.289
- Kim, A. Y. (2014). A key competency for future education: Self-directednes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4), 593-617. doi:10.17286/KJEP.2014.28.4.03
- Kim, B.-S.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s, cultural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s in adolescent's sex.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21(4), 91-103.
- Kim, C.-J. (2008). The environments variables that affect adolescents' creative personalit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6(3), 159-181.
- Kim, E. H., & Yoo, S. K. (2012). Influence of family resilience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5, 145-171.
- Kim, H.-B. (2015).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Sport*, 13(4), 443-452.
- Kim, K. J., Kim, A. Y., & Cho, S. H. (1997). Conceptualization of creative problem solving for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school subject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5(2), 129-153.
- Kim, K.-K. (2006). The effects of family disruption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2), 27-49.
- Kim, S. M., & Yu, N. S. (2019). Analyses of subject competencies of the units related to core concept relation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1(2), 1-18. doi:10.19031/jkheea.2019.06.31.2.1
- Kim, Y., Namkung, J., Park, K., Choi, I., Kang, H., Kim, M.,...Song, S. (2016). *2016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development study (KELS) 2013(I): Survey summary report*. Chung Bu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Y. J., & Kim, J.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on interpersonal competency of adolescents in school-level transition and validation of influential factors in parental attitud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47-66. doi:10.22251/jlcci.2020.20.17.47
- Koo, B. H., & Kim, J. C. (2018). Latent profile analysis on academic achievement, career identity, friendship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1), 125-149. doi:10.21509/KJYS.2018.11.25.11.125
- Kwon, M. S., & Shin, J. H. (2009). The impacts on the creative tendency of the social capital of family background and that of parent-child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2), 49-64.
- Lee, J.-D. (2019). A Study on the level of creative thinking ability and influence factors of high school self-directed learning entrance admissio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2), 529-548. doi:10.24159/joec.2019.25.2.529
- Lee, K., Beak, K., & Lee, S. J. (2017). Key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relationship with the idea of the educated person, educational goals, and subject competenci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2), 67-94.
- Lee, K.-W., & Hong, W.-P. (2012). A study on relation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to core competencie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5(2), 1-23.

- Lee, S., Jang, Y., Song, J., & Hong, S. (2021). Classification of academic motivation in adolescence and relation with learning strategy, academic stress, career maturity, happiness by applying latent profile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3), 85-112. doi:10.21509/KJYS.2021.03.28.3.85
- Lee, S.-Y., & Song, J.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cademic · emotion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The longitudinal changes over 4 years. *Studies on Korean Youth*, 28(4), 77-112. doi:10.14816/sky.2017.28.4.77
- Lee, Y.-K., Park, S.-Y., Min, J., & Shin, Y. (2021a). The relation between the latent profiles of high school students' core competency and the perceptions of competency-based class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2(1), 1-29. doi:10.15753/aje.2021.03.22.1.1
- Lee, Y.-K., Shin, Y., Kim, B., & Min, J. (2021b). Stability of core competency latent profiles and their predictors and outcome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5(3), 507-532. doi:10.17286/KJEP.2021.35.3.06
- Lim, J. A. (2005). *A study on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Lubke, G., & Muthén, B. O. (2007). Performance of factor mixture models as a function of model size, covariate effects, and class-specific paramet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1), 26-47. doi:10.1080/10705510709336735
- Lucas, B. (2001). Creative teaching, teaching creativity and creative learning. In A. Craft, B. Jeffrey & M. Leibling (Eds.), *Creativity in education* (pp. 35-44). London, England: Continuum.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The announcement and the confirmation of the general guidelines fo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15. 9. 23))*.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5c). *The national guidelines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1).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22 revised curriculum general guidelines highlight (2021. 11. 24))*.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
- Muthén, B., & Asparouhov, T. (2012). Bayesia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ore flexible representation of substantive theory. *Psychological Methods*, 17(3), 313-335.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 *Mplus: The comprehensive modeling program for applied researchers: User's guide*.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amkung, J., Kim, Y., Park, K., Choi, I., Park, H., & Kim, Y. (2016). *2016 KEDI survey research on student competencies*. Chung Bu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Namkung, J., Kim, Y., Park, K., Jung, D., Park, H., & Kim, Y. (2015). *KEDI survey research on student competencie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struments*. Chung Bu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No, U., Jung, S., & Hong, S. (2014).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delinquenc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determinants. *Studies on Korean Youth*, 25(4), 211-240. doi:10.14816/sky.2014.11.75.211
- Nylund-Gibso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doi:10.1080/10705511.2014.915375
- OECD. (2006). *Measuring the effects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 Paris: OECD Publishing.
- Park, H., & Namkung, J.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key competenc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8), 149-172.
- Park, M. J. (2009).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ence-based curriculum and its critical issu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4), 71-94.
- Park, S.-H., Kim, J.-H., & Kim, J.-M. (2014).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adolescents' empathy ability: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2(4), 225-237.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0). A contribution of the OECD program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INES General Assembly*, 8. Retrieved from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A-Contribution-of-the-OECD-Program-Definition-and-Rychen-Salganik/0e68bea4cdad0c35fad9c3fee9e586e2bba61204>
- Ryu, D.-S., & Kim, B.-J. (2010).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havior and children's intrinsic motivation toward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1(1), 85-98.
- Schmiege, S. J., Meek, P., Bryan, A. D., & Petersen, H. (2012).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A flexible statistical approach for identifying and classifying heterogeneity. *Nursing Research*, 61(3), 204-212. doi:10.1097/NNR.0b013e3182539f4c
- Shin, T. (2010). Latent class study using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Comparing growth mixture modeling.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3(3), 641-664.
- Shon, M. H. (2006). Competence, and everydayness of practical knowledge as its practical found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4), 1-25.
- So, K. H. (2007).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hooling: It's meaning and curricular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1-21.
- So, K. H. (2016). A review of main issues surrounding creativity in school education: Implications for curriculum stud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4), 99-119.
- Son, Y., & Kim, N. (2019). The classifi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creative competences using multilevel latent profile analysis: Influential factors and student agenc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7(4), 611-641.
- Synn, M. H., & Lee, H. W.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case of middle-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2), 113-134.
- Tein, J. Y., Cox,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4), 640-657. doi:10.1080/10705511.2013.824781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Chichester: John Wiley/Higher Education Press.
- Yang, J. S., & Yoo, T. M. (2015). Relations of key competencies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27(3), 1-18.
- Yoo, S. J., & Lee, Y. S. (2018). Systematic development of instruction for family life planning of high school curriculum for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based on backward desig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1), 33-54. doi:10.6115/fer.2018.003
- Yoon, C.-H.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identity: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4), 129-15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핵심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을 다르게 예측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실시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4차년도 자료 중 중학생 2학년 6,0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역량에 따라 3개 잠재프로파일(‘상위 역량 집단(19.54%)’, ‘중위 역량 집단(49.03%)’, ‘하위 역량 집단(31.43%)’)을 도출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높고, 창의적 사고 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 변인(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애착 수준)은 모두 각 핵심역량 잠재프로파일별 유의한 차이를 예측하였다.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중학생의 핵심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핵심역량 발달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나아가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논문접수일자: 2022년 6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22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6월 29일